



‘민물귀족’ 산천어도 바다양식한다

수산研 고흥지소, 무지개 송어 이어 두번째

국내 첫 시도… 바닷물 적응 성공 가두리 입식

강원도 계곡에서 자라는 무지개 송어의 바다 양식에 이어 ‘민물귀족’ 산천어가 첫 바다양식에 들어갔다.

전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흥지소(소장 이용한)는 11일 “최근 강원산 산천어 4000마리를 바닷물 순치(順治)에 이어 해상 가두리 입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천어에 대한 바다 양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고흥지소는 지난해 무지개 송어의 바다 양식에 성공한 바 있다.

무게 90g에 15cm 남짓 된 산천어 치어는 5개월 가량 바다에서 1kg급의 성어로 자라게 되는데 적응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지소는 이미 송어 및 연어류의 해상 순치 및 양식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등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바다 양식은 휴어기(休漁期)인



고흥지소 직원들이 바닷물 적응을 끝낸 산천어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집어 넣고 있다.

북 내륙지역에서 일부 양식될 뿐 그 양이 미미해 바다양식으로 대량 생산과 함께 대어(大魚)로 키우면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지소 관계자는 “양식 산천어는 kg에 3만~4만원선으로 돌돌, 우려, 광어 등 바닷물고기와 무지개 송어에 비해서도 2~3배 가량 높은 편으로 경쟁력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산천어는 연어로 연어와 토종 민물

고기로 송어의 육봉형(陸封型·바다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모천 회귀성 어종에서 육지 생활 습성으로 바뀐 형태)이다. 육지에서는 20cm정도 밖에 크지 않지만 바다에서는 50~60cm까지 성장한다.

한편 지난해 양식에 성공한 송어는 올해 8곳에서 3만여마리가 입식됐으며 9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직중기자 gjju@

“새끼 꼬아꼬아 용줄 만들어 봄시다”

용줄다리기대회 앞둔 순천 해릉면 12~13일 체험행사

‘용줄 다리기를 아시나요?’

순천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인 해릉면 중흥·해창마을에서 ‘용줄 다리기’ 체험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용줄 다리기는 새끼를 꼬아 줄다리기 사용되는 고(용줄)를 만드는 것이다. 중흥·해창마을은 오는 27일과 28일 개최하는 ‘중흥·해창 용줄다리기대회’에 사용될 용줄을 만들기 위해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용줄을 만드는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용줄다리기 행사는 세시 풍속을 축제화 한 것으로 해릉면 주민들

은 용줄을 만들고 출고사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용줄은 12기각씩 3줄로 만들어 앤돌아 갈 때까지 비벼서 다시 한가닥으로 만드는데 마을 주민들이 훈연 일체가 꽤 ‘비벼리’, ‘도서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줄을 끊는다.

줄다리기 대회는 30명 정원 1팀으로 사전 참가 접수를 받아 1등 상금 250만원, 2등 상금 130만원, 3등 80만원, 4등 40만원이 주어진다.

대회 참여에 대한 문의는 농촌관광 홈페이지(scg.go.kr)나 순천시 관광진흥과(061-749-3866)로 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여수서 ‘해양로봇페스티벌’

내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여수시는 13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체육관에서 청소년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해양로봇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맨스로봇 시연과 해양로봇 미션수행 프로그램에 이어 열띤 로봇경기가 펼쳐진다.

유치부에서 초·중·고등부까지 열리는 경기는 아기오리 원정대,



해저탐험, 해저볼링레이스, 해양 자원수송, 로봇발명왕 등 5개 종목 경기와 시상, 그리고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로봇을 나눠주는 행사가 이어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남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2012년까지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대회를 계기로 여수가 해양로봇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해남 대상·담양 최우수상·광양 우수상

전남 친환경농업대상 힙쓸어

목록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

해남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이 경지면적의 42%인 1만4천㏊이고 이중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은 전체면적의 88%에 해당하는 1만3천㏊를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례 도율F&B는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 등을 원료로 오곡 푸레이크, 유기농현미 코코루레이크 등 유기농식품을 개발, 연 54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3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열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낙안읍성, 더 추워지기 전에 지붕 이어요”

민속마을인 순천 낙안읍성 주민들이 11일 겨울을 나기 위해 전통방식으로 초기 지붕에 이영을 잊고 있다.

〈순천시 제공〉

목포 죽교동에 ‘초롱초롱 작은도서관’

오늘 개관… 지식·생활·문화서비스 제공

목포시 죽교동에 ‘초롱초롱 작은도서관’이 12일 문을 연다.

목포시가 1동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은 학습기회가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지식정보와 생활·문화 서비스의 혜택을 솔직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목포홍일고 건너편 옛 춘광경로당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도서관은 1·2층 실내면적 148㎡ 규모로 어린이 열람실과 이야기방, 정보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유아, 어린이용, 성인 도서 3000여권이 비치돼 있으며, 동화구연과 스토리텔링 등의 문화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고 빌려가는 딱딱한 공간이 아닌 독서의 놀이터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책도 읽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2006년부터 추진해 그동안 8개소를 개관해 운영중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금산공인중개사

대인동삼일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 투자용)

- 토지 150평 규모 4,400평(매기200) 예보증금 100万 / 월세 5,000만원
- 토지 594평 규모 725평(매기 95억) 예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 토지 164평 규모 598평(매기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예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용,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m²(250평)- 매기 평당 1,300만원(클럽스극장과 미백스클럽과 함께) 1,975평(매기 32억) ■ 3,224m²(975평)- 평당 500만원
- 1,654m²(500평)- 평당 900만원

건물(임대용, 투자용)

- (농장 73,000㎡)(2만2천평) 전, 달평 10평(동물원) 투자용 흙곳
- (공동기기) 승용차 500대(2,000평) 전, 흙곳

상무신도심

상가·업·용·지(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복합 APT 주택기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증축현명/상가/오피스

유형 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공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병합지구

※ 10층 신축건물로 코너

T.681-5666 H.011-601-5354

(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 FAX 083-5221 헌 011-609-5221

(상무지구 바이동 김치원 1층)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이드로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10층 신축건물로 코너

※ 10층 신축건물로 코너